

## 376조원 슈퍼 예산 광주·전남엔 '짚뚱'

### 6조 5278억원 반영에 그쳐

정부가 전년도 대비 20조원이나 증가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슈퍼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들이 여전히 반영되지 못해 지역 쇠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세입의 경우 지난해 369조3000억원에서 3.6% 증가한 382조7000억원, 세출은 지난해 355조8000억원에서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책정됐다. 금융 위기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 금액으로만 20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정부예산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105건 1조4721억원에 그쳤으며, 증가액도 겨우 782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시의 정부 건의액이 2조 4775억원(139건)이었다는 점에서 금액 대비 70%대를 확보하는 데 머물렀으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비,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 상무~첨단산단간 도로 개설 등 주요 예산이 줄줄이 누락됐다.

그나마 위안은 행정경험이 없는 '시민시장' 취임 첫해에도 신규사업 예산 반영액이 1365억원(49건)으로 전년도(37건 478억원) 대비 3배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 2015 예산안 지출액(단위:억)

총	376조
광주시	1조 6086억 (KTX·88고속도로 예산 제외)
전남도	4조 9192억

■ 2014년 대비 증가액(단위:억)

총	20조 2000억 (5.7%↑)
광주시	782억 (5.1%↑)
전남도	1962억 (4.2%↑)

특히 기존 계속 사업 예산이 아닌 신규사업 예산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전남도의 예산 확보 상황도 심각하다. 정부 예산 반영률이 전년도 대비 고작 4.2% (196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474건에 8조1125억원을 건의했으나 357건에 4조9192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타당성 재평가를 이유로 미반영됐으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 구축, 국립 난대산림 치유단지 조성 등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굵직한 주력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서 빠졌다. 신규 사업도 7건(335억원)만이 겨우 반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미반영 사업들이 국회 예산심 의결과정에서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예결위원 등을 대상으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45억 '아시아인의 꿈'이 열린다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박순호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비롯한 임원·선수단들이 인천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경기광장에서 마카오, 아랍에미리트, 오만, 캄보디아, 홍콩 선수단과 함께 공동으로 입촌식을 갖고 있다.

### 인천아시아경기 오늘 개막 ... 임권택 '개막식 효녀심청+IT'

### 광주·전남 출신 선수 82명 출전 ... 21일부터 본격 금 사냥

45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평화의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9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관련기사 2·20면>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를 주제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16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이 참가하면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45개국 이 모두 참여한다. OCA 소속 국가가 모

두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수들은 36개 종목에서 금메달 439개를 놓고 1만3000여명의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경기장은 개·폐회식이 열리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해 문학백대환수영장, 계양아시아드양궁장 등 모두 48곳이다. 대회의 꽃인 개회식은 임권택 감독이 총감독을 맡았다. 임 감독은 '인천, 하나

가 된 아시아를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통해 인천에서 다시 화합을 이루고픈 소망을 표현한다. 그 연결고리로 인천의 바다에 얽힌 두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 공 비류왕자와 효녀 심청을 택했다. 공연에는 약 출연진 2700여명이 참가한다. 한국은 금메달 90개 이상과 5회 연속 종합 2위가 목표다. 전통적 메달발인 사격 15개, 펜싱 7개, 양궁 6개, 태권도 6개, 유도 6개의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양학선·이용대·김덕현·이특영 등 82명이 출전, 메달을 노린다. 대회 셋째날인 21일 오후 9시

20분께 유도의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이 고향에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덕현(말리뛰기·세단뛰기), 이특영(양궁), 양학선(체조), 최은숙(펜싱), 나지안·양현종·임창용·김정호·나성범(야구)도 금메달이 유력하다. 하키의 이승일·이승훈 형제도 금메달을 노린다. 전남에서는 이용대(배드민턴), 최복음·박종우·이영성(볼링), 김영웅(골프), 주현정(양궁), 이태양(야구), 이종호(축구) 등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경기 외에 불거리도 풍성하다.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아시아음식문화축제가 진행되고, 26일부터 이틀간 화도진공원 일대에서는 화도진축제이 열린다. /인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새정치 비대위원장에 '구원 전문' 문희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69·사진) 의원이 추대됐다.

<관련기사 4면> 새정치연합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원로·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문 의원을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정했다. 문 의원은 이로써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의 조기 수습과 강력한 혁신책 마련, 공정한 전당대회 개최 등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19일 의원총회에서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것은 과도기에 계파 색채가 없고 정치 연륜과 관록을 겸비한 '관리형' 리더로 적임자라는 의견이 모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동채 전 장관 광주비엔날레재단 '6개월 대표'

### "재단 혁신방안 마련 주력"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사진)이 선임됐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호일' 논란으로 사퇴한 이용우 전 대표이사 후임에 선임된 정 전 장관은 내년 5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관련기사 18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8일 오전 재단 사무실에서 제136차 이사회를 열고 정 전 장관을 "시민과 지역 미술인의



정 장관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구원투수' 성격으로 대표이사에 선임된 정 전 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후임 대표이사 선정과 광주비엔날레 기능, 조직, 인사, 재정, 기금 등 운영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 전 장관은 "시민과 지역 미술인의

의견을 청취해 광주비엔날레가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돋보일 수 있는 공신력이 높은 행사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 역할을 광주비엔날레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대표이사 선정되고, 광주비엔날레의 혁신 방안이 마련되면 임기 이전이라도 떠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이사는 제41대 문화관광부 장관과 제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회장, (재)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쌀시장 개방 '성년 농심' ▶6면 '태극마크 단 메시' 이승우 ▶21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www.bongsun-jell.co.kr 재일건설(주)

봉선동 (구)남구청자리  
자부심으로 빛나다

교육에서 생활, 문화, 자연 등 누리는 모든 것이 브리마인,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곳  
봉선동, 그 이름만으로도 자부심이 됩니다.

| 봉선동 제일풍경채 |

봉선동 자부심에 혁신 설계의 명품 공간까지 - 봉선동 제일풍경채

- 다양한 편의시설 | 주거선호도 높은 (구)남구청 자리, 이마트, 병원, 은행 등 편의시설 밀집
- 우수한 명문학교 | 단지 인근 불로초, 조봉초, 운성중·고교에 서진여고, 동아여중·고교 등 명문학교
- 쾌적한 자연환경 | 제석산, 유안공원 인접, 단지 인근 근린공원 및 도서관 조성 예정(2015년)
- 혁신적 공간설계 | 4-Bay와 대형 수납공간 설계, 최상층 테라스 및 복층 구조(일부세대 적용)

LG 공기청정기 팜팡

전용 84㎡ (A/B/C) 총 400세대  
문의 062) 381-8858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사모 재일건설(주)

'살기좋은 아파트'  
2009년, 2012년 국무총리상 2회 수상

봉선동 (구)남구청자리  
자부심으로 빛나다

교육에서 생활, 문화, 자연 등 누리는 모든 것이 브리마인,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곳  
봉선동, 그 이름만으로도 자부심이 됩니다.

| 봉선동 제일풍경채 |

봉선동 자부심에 혁신 설계의 명품 공간까지 - 봉선동 제일풍경채

- 다양한 편의시설 | 주거선호도 높은 (구)남구청 자리, 이마트, 병원, 은행 등 편의시설 밀집
- 우수한 명문학교 | 단지 인근 불로초, 조봉초, 운성중·고교에 서진여고, 동아여중·고교 등 명문학교
- 쾌적한 자연환경 | 제석산, 유안공원 인접, 단지 인근 근린공원 및 도서관 조성 예정(2015년)
- 혁신적 공간설계 | 4-Bay와 대형 수납공간 설계, 최상층 테라스 및 복층 구조(일부세대 적용)

LG 공기청정기 팜팡

전용 84㎡ (A/B/C) 총 400세대  
문의 062) 381-8858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사모 재일건설(주)